

# 공학교육 인증을 실시하며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모두 그렇게 하면 나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만일지 모른다. 그러나 국내 교육에 만족하지 못해서 유학가는 학생들의 수가 늘고,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 들어오고, 이제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수 밖에 없다.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에 우리만 우물안 개구리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



문 일  
연세대학교 교수

전국시대의 유명한 사상이었던 순자(荀子)는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는 말을 했다. 이는 '쪽물에서 나온 푸른색이 쪽풀보다 더 푸르다' 라는 뜻이다. 즉 푸른 물감은 원래 쪽풀에서 뽑아낸 것이지만 오히려 원래색인 남빛보다 더 푸르다. 비슷한 말로 '얼음은 물이 변한 것이지만 물보다 차다' 라는 말도 했다. 제자도 힘껏 면학(勉學)하면 스승보다 뛰어나게 된다는 비유로써 스승보다 뛰어난 사람을 청출어람 이라고 비유한다.

교육이란 단순한 지식 전달만이 아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人才)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 현실은 어떠한가? 박사 학위만 받고 교단에 서면 그만이다.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는 체계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모두 수년간 가르쳐왔다.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모두 그렇게 하면 나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만일지 모른다. 그러나 국내 교육에 만족하지 못해서 유학가는 학생들의 수가 늘고,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 들어오고, 이제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수 밖에 없다.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에 우리만 우물안 개구리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

본인은 이러한 이유로 교육에 대해 고민하면서 공학교육 인증 일에 참여하였다. 개인적 희생이 따르고, 분명히 옳은 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지 못할 때 좌절감도 맛보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사명감을 갖고 이 일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올해 두 대학을 처음 평가하여 인증판정을 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약 10개 대학을 인증할 것이고 매년 10개 대학 이상 평가할 예정이다. 몇년간 이러한 인증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미국의 ABET과 일본의 JABEE 등 다른 나라들과도 상호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 인증이 기존의 대학 평가와 다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양적인 평가보다는 질적인 평가를 우선한다. 학생대 교수수의 비율, 실험 기자재의 충분성 등 양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졸업생이 무엇을 알고 있나를 평가하는 것이 본 인증의 핵심이다. 물론 평가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자 workshop을 수 차례 갖고 평가자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학생들의 숙제나 시험 답안지 등을 살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 개선을 위한 순환(feedback)시스템이 존재하느냐를 평가한다. 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속 바뀌어야 한다. 아무리 우수한 교수도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썩은 물로 고일 수 밖에 없다. 졸업생, 졸업생의 직장 상사, 학과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그 과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받고 이 결과를 교육 개선을 위해 꾸준히 반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인증은 일회성 평가가 아니고 꾸준히 발전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것이다. 또한, 인증은 평가라기 보다는 해당 학과의 발전을 위한 조언(consulting)을 하는 기회이다. 이를 위해 공학 관련 분야 학회에서는 분야별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평가자를 추천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처음 도입하는 제도라 많은 노력이 요구되지만 진정한 교육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 인증 제도는 꼭 필요하다. 청출어람의 인재를 길러내는 효과적인 교육 제도이기도 하다.